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코오롱티슈진 주주 여러분.

우선 저희 TG-C 미국 임상 3상 첫 번째 결과 발표로 인해 여러분들께 깊은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린 점,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랜 시간 TG-C의 가능성을 믿고 당사의 여정에 묵묵히 동행해 주신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에, 저희가 느끼는 무거운 책임감과 송구한 마음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이번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주주 여러분의 질책과 실망감을 뼈아프게 새기고 있습니다.

당사는 과거 임상 결과와 달리, 이번 임상 3상 첫 번째 연구(15302 Study)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 원인을 원점에서부터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현재 최고의학책임자(CMO)인 앤디 웨이먼(Andy Weymann)의 주도하에 정밀 원인 분석에 착수했으며, 향후 확보될 추가 임상 데이터 역시 어떠한 예단도 없이 가장 객관적이고 엄격한 과학적 기준에 맞춰 분석할 것입니다. 나아가 최고 권위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발 방향성을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에 대해 많은 주주 여러분의 우려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회사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임상 3상의 두 번째 연구(12301 Study) 결과 분석은 세계적인 공신력을 갖춘 외부 전문통계업체(CRO)를 통해 독립적이고 철저하게 진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임상 결과 발표 전 발생한 주가 하락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회사는 임직원의 주식 매매를 엄격히 금지해 왔으며, 임상 데이터를 다루는 관련 부서의 보안 수준을 최고 단계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등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주주 여러분, 코오롱티슈진은 이 땅에서 아무도 바이오 사업을 돌아보지 않던 시절부터 30년 가까이 오직 TG-C 개발이라는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험난한 길이었기에 때로는 걸려 넘어지고 아픈 시련도 겪었지만, 그때마다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오직 주주 여러분의 변함없는 믿음과 소중한 지지였습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여정에서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도전과 마주했지만, 코오롱티슈진은 결코 여기서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변명이나 막연한 희망에 기대지 않겠습니다. 오직 과학적인 데이터와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모든 과정을 주주 및 시장

과 철저히 공유하겠습니다.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거창한 말이 아닌 '확실한 결과'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라는 명예를 반드시 되찾고, 전 세계 골관절염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날까지 회사의 모든 역량을 다해 전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당사를 믿고 지켜봐 주시는 주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신뢰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6일

코오롱티슈진 대표이사 노문종·전승호